

# 나주 금성산 산정부 57년 만에 '도민 품으로'

### 1966년부터 군부대 주둔으로 보안상 통제

### 관·군 협약으로 등산로 조성...17일 개통식

군부대 주둔으로 57년 간 통제됐던 전남 나주 금성산 산정부가 상시 개방됐다.

전남도는 17일 금성산 산정부 노적봉에서 김영록 지사와 윤병태 나주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권진기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장, 이상만 나주시의장, 지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갖고 상시 개방을 축하했다.

광주 무등산 인왕봉이 앞서 지난해 9월 57년 만에 상시 개방돼 시민 품으로 돌아온 데 이어 이번에 나주 금성산까지 개방되며 호남의 진산(鎭山) 두 곳이 지역민의 품에 안기게 됐다. 나주 원도심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금성산(해발 451m)은 주변에 국립 나주숲체원, 생태습지 산립휴양·여가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1966년 군부대 주둔 후 산정부 등반이 보안상 불가능해지면서 상시 개방이 주

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남아 있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금성산 정상부 개방을 위해 관·군 협력을 이어왔고, 그 결과 지난 4월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과 상시 개방 협약을 맺었다.

또 전남도의 지원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정상부로 진입하는 등산로 개설공사를 시작, 올해 2월 조성을 마무리했다.

등산로 개설 공사에는 총사업비 13억 원(도비 8억·시비 5억)이 투입됐다. 금성산 낙타봉~노적봉을 연결하는 코스로, 총길이 585m, 폭 1.8m의 데크길과 목재 계단으로 이어져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했다.

금성산 숲길 12개 노선 26.6km와 연결돼 노적봉 정상까지 제약 없이 등반이 가능해져 산행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근에 위치한 국립 나주숲체원, 금성산 생태습지, 산림욕장



과도 산림관광 코스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무등산 인왕봉이 개방된 데 이어 금성산 노적봉도 함께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돼 의미가 더욱 깊다"며 "금성산 산정부 도유림 일원에 조성된 등산로가 산림관광 명소가 되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시장은 기념사에서 "57년 만에 금성

산 정상부 상시 개방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있게 해준 시민들의 오랜 노력과 물심양면 지원 해준 전라남도, 등산로 설치·개방에 협조해준 공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이 천혜 관광자원으로서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산이 될 수 있도록 등산로 단절 구간 연결, 쾌적한 환경정비 등 관광자원화에 힘써 가겠다"고 강조했다.

## 장성군 "병원·숙소 등 소독의무대상 확인하세요"

### 연간 소독 횟수에 따라 구분

장성군이 지역 내 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 소독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연간 소독 횟수에 따라 나뉜다.

먼저 연간 9회 소독해야 하는 시설로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대합실 및 역사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 등이 있다.

연 5회 소독 시설은 △100명 이상에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위탁급식업소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기숙사나 합숙소 △300석 이상 공연장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학원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사무실 및 복합용도 건축물 △50인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해당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연간 3회 소독을 실시한다. 최대한 빈틈없이 소독해야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보건소 감염병대응팀(061-390-71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절저한 시설 소독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안내문, 누리집, 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 화순군,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행위 일제 단속

### 하천 수질오염 및 재해 위험 우려 행위 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화순군은 19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지방 하천 62개소와 소하천 400개소를 대상으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재해 발생 방지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일제 조사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천 내 불법 경작 행위 일제 단속은 공적 자원인 하천 및 하천수의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하천환경 훼손을 예방하고자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일제 조사 단속반을 편성해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을 시행한 후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및 계도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하천법」에 의한 벌금부

과·징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천 시설물의 파손 및 군민의 안전사고,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구례군-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업무 협약

### 289개소 연간 2400(20kg)포 지원

구례군은 지난 15일 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백일현)과 구례군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구례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순호 군수, 백일현 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관내 경로당 289개소에 연간 친환경 쌀 2,400(20kg)포를 지원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포당 5,000원, 연간 1,2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친환경 쌀은 구례군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경로당으로 직접 배송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친환경 쌀 판로 확대

로 농민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곡성군,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옥과농협 선정...4억6천만원 규모

곡성군은 지난 며칠 곡성군청 소풍마루에서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옥과농협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이귀동 부군수 주재로 열린 심의위원회에는 곡성군의회, 교육지원청, 학부모 대표, 급식단체, 생산자 대표 등 다양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곡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급식의 친환경 제품 전환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관내 총 32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한 4억 6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귀동 부군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대나무 실감 콘텐츠 기획전

담양군이 한국대나무박물관 제1전시실에 대나무 소재를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환경을 구축, 시범적으로 기획전시회를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전남정보문화화산산업진흥원과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는 지역 특화 자원인 대나무를 활용, 대나무박물관의 상설 전시에 더해 경험을 통해 총체적 감흥을 누리는 새로운 방식의 전시를 선보인다.

기획전시는 '미디어를 통한 경험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 담양만의 지역 특성을 토대로 '대나무의 세계', '대나무의 모든 것' 등의 이야기를 구성해 실감 콘텐츠를 구현했다.

또한 제1전시실 기획전 기념 이벤트를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한다.

첫 번째 이벤트는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엠 '여기어때'를 통해 담양에서 숙박할 시 1박당 2명 무료입장을 지원하고 두 번째 '얼른 오시오' 이벤트는 관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1인당 담양사랑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한다.

세 번째 '소문내기' 이벤트는 기획전시를 관람한 후 본인 SNS에 후기글을 게시하면 선착순 200명에게 현장에서 소형 여행 가방을 지급한다.

담양=박종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